

## 클레오파트라의 정염(情炎)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7가지 인공구조물 - 중국의 만리장성, 영국의 솔즈버리 스톤헨지,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터어키의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알렉산드리아 등대 - 이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수세기 동안 실제 사용된 실용성으로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300개의 방이 딸린 완벽한 구조물로서, 끊임없이 지핀 불을 청동거울에 반사시켜 50km 밖의 선박에서도 볼 수 있게 한 믿기지 않는 걸작이다.

우리는 이 등대가 있는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평가받는 클레오파트라(7세)가, 이집트를 지배한 그리스 왕조의 마지막 공주로 태어나 39년의 극적인 삶을 마감한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하기로 하자.

서양에서 미인의 조건은 우선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빛 머리로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클레오파트라는 통상적인 미인은 아니었다. 그녀의 코는 조금 길었고, 피부는 검은 편이었으며, 이집트 식 단발머리는 적갈색이었다. 사람이 신을 닮지 못하도록 심술을 부린다는 “신의 손” 탓에 그녀의 얼굴은 완전한 좌우 대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거울을 내동댕이치며 짜증을 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총명하고 단호하였으며, 음악 같은 저음의 목소리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거기에 천부적인 교태와, 목숨을 걸고 불태운 정염(情炎)의 덕으로 후세의 남자들로부터 최고의 미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클레오파트라는 평생에 두 남자를 사랑했는데, 한 사람 카이사르에게는 사랑을 바쳤고, 다른 한 사람 안토니우스에게서는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당대 로마 영역을 지배한 최고의 권력자였다.

패권자 카이사르와의 전략적인 사랑으로 그녀는 이집트 여왕의 자리를 보장받았고, 로마를 끌어들이며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키워갔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매력을 동원하였으며, 카이사르는 그녀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였다. 속절없는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던 것은 각각 21세와 52세의 일이다.

카이사르에 대한 착각을 거울삼아, 클레오파트라는 후일 안토니우스를 사로잡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뛰어난 남자는 여자 뜻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는 남자는 여자의 성에 차지 않는 법이다. 편안했던 남자 안토니우스는 끝내 그녀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했다.

이집트와 아이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는, 다시 6살 연하의 새로운 패자 옥타비아누스에게 마지막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매력도 40세를 앞둔 나이 앞에서는 빛을 잃고만 것이리라.

절세 미인은 아니면서도, 남들이 그리 여기게 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매혹적인 여제(女帝) 클레오파트라가 떠난 뒤에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면면히 자신을 불태웠고, 지진으로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1,300여 년간 캄캄한 뱃길을 밝혀주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역사는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